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음 5월 2일 甲子)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different zodiac signs, including text and zodiac symbols.

대형 기획사들 예능인 모셔가기 경쟁

YG “유병재의 창의력에 주목해 영입 결정”

FNC 송은이·이국주 이어 정형돈까지 영입

SM 계열사에 강호동 등 예능계 톱 MC 보유

대형 가요 기획사들이 개그맨 등 전문 예능인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방송작가 겸 방송인 유병재와 개그우먼 안영미를 영입한 데 이어 FNC엔터테인먼트가 16일 개그맨 정형돈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SM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 SM C&C를 통해 강호동, 신동엽, 김병만, 이수근, 전현무 등 예능계 톱 MC와 개그맨을 대거 영입하며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몸집 불리기를 한데 이은 행보다. FNC에도 송은이, 문세윤, 이국주 등의 개그맨들이 몸담고 있다.

가수 육성과 음반 제작을 기반으로 한 가요 기획사들이 종합엔터테인먼트사로 거듭나고자 배우를 영입하는 것은 일반화됐지만 요즘처럼 개그맨과 전문 MC 등 예능인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은 주목할 대목이다.

한때 유재석이 기획사를 물색한다는 소문이 여러 가요 기획사들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행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지상파뿐 아니라 케이블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해지자 예능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실제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몇몇 MC들에게 크게 좌지우지되는데 그로 인해 유재석, 신동엽, 김구라, 전현무 등 검증된 톱 MC를 향한 쏠림 현상도 심하다. 이들을 향한 광고계의 러브콜도 활발하다.

이 때문에 배우 기획사보다 전통적으로 예능 분야 매니지먼트에 강한 가요기획사들이 스타 예능인 육성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다. 톱 예능인을 보유할 경우 방송계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가능하다.

예능인 기획사로 주목받는 초록백수나이엔엔의 김다령 대표는 “가수와 배우보다 예능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수나 예능인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며 “또 톱 예능인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와의 패러다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소속 연예인을 띄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예능인들 역시 매니지먼트 힘이 강한 기획사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니 ‘윈윈’이다.

특히 예능인을 영입한 SM, YG, FNC 등의 기획사들이 코스닥 상장사란 점도 눈길을 끈다. 단순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예능인을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도 가능한 만큼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추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SM 계열사 SM C&C가 자사 예능인과 소속 연예인을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의 외주 제작을 하듯이 예능 콘텐츠 제작 기반 확충을 위한 것이라 시각이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방송작가이기도 한 유병재의 영입에 대해 창의력에 주목했다며 콘텐츠 기획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즘처럼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예능 한류가 일어난 바깥 시장 환경도 호재다. SBS TV ‘런닝맨’을 비롯해 MBC TV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의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포맷과 판권 수출에 호조를 띠고 있어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로 대중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전환된 환경에서 예능인을 보유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도 유리하다.

“통쾌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보세요”

영화 ‘쓰리 썸머 나잇’ 김상진 감독



‘주유소 습격사건’,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로 2000년을 전후로 총무로 코미디의 전성기를 맞았던 김상진 감독(사진)이 여름철 극장가에 ‘웃자고 만든 코미디’를 들고 돌아왔다.

김 감독은 15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쓰리 썸머 나잇’ 제작보고회에서 “‘주유소 습격사건’부터 ‘광복절 특사’까지 사회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나 영화가 끝물에 무거워지더라”며 “이번에는 재미있게만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썸머’란 표현을 좋아하고 B급 정서가 잘 맞는다”며 “극장 의자에 관객을 앉혀놓고 교훈을 강요하는 것은 내 취향에 잘 맞는다”고 강조했다.

내달 개봉할 예정인 ‘쓰리 썸머 나잇’은 사흘 밤의 일탈을 꿈꾸며 해운대로 떠난 만년 고시생 명석(김동욱), 폴센더 상담원 달수(임원희), 제약회사 영업직원 해구(손호준) 등 세 친구가 눈을 떠보니 조폭, 경찰, 여자친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야기.

이 영화는 ‘남자의 영화’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여자친구 역을 맡은 류현경을 제외한 대부분 주연이 남자 배우이고 줄거리 자체도 남성 관객을 공략한다. 김 감독은 “남자라면 누구나 일탈을 꿈꾸는데 그걸 만족하게 할 것”이라며 “심오한 철학적 깊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통쾌하게 웃으면서 재밌게 보는 영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화가 자신의 연출작 중에서 ‘두 번째로 재미있는 영화’라며 “앞서 ‘주유소 습격사건’이 재미있었고, 나중에 만들 영화가 또 가장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주연 배우 임원희는 “영화를 찍은 게 아니라 해운대에서 놀았다는 기분이 들 정도의 영화였다”고 소개했으며 김동욱도 “코미디 장르에 왜 이렇게 액션 장면이 많은지, 촬영 내내 킥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말뉴스

